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1년도 제4호

© Jericó Chimeno

“여러분이 감사할 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십시오.
이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인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20년 12월 30일 수요 일반 말현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동료들에게 “항상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로도 선포하십시오!”라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 위대한 성인을 안내자로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전적으로 이 사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후원 덕분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원조 사업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ACN의 모든 사업이 복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당과 경당은 돌의 형태를 한 사목입니다. 자동차, 보트 등 운송 수단 지원으로 사목자들이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도자를 위한 생계 지원과 사제를 위한 미사 예물 지원은 이들이 복음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듣는 것보다 그들의 모범을 보면서 예수님께 훨씬 가까워집니다.

저희는 ACN의 활동을 사목적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CN의 모든 행동은 복음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ACN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와 이웃을 위한 개인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많은 후원자분들, 자원 봉사자분들과 직원들이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또 한 번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현존이 선물이라는 것,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진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청한 적도 없는데도 받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연 필연적 존재나 순수한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신 피조물입니다. 나아가 하느님의 선물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수락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내면의 만족과 기쁨이 결여됩니다. 언제나 특이하게 기쁨으로 빛나는 한 사제에게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아흔다섯입니다. 저는 다섯 살에 사람들이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끊임 없이 슬퍼한다는 사실을 어렵풋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대해 하느님께서도 슬퍼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살아 있는 100년 동안 절대 슬퍼하지 않고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선물을 늘 찬미하겠다고 하느님과 약속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약속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찬미한 이 모든 날들 중에서 악은 제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악령을 피했지요! 이제 이 약속을 앞으로 100년 더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히 얼핏 보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예.’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일수록 더욱 감사할 줄 알고, 그럴수록 그 사람은 신앙과 사랑 안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는 심지어 고통까지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리지외의 성녀 소화 데레사의 증언이 여기에서 영감을 줍니다.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웃고, 감사하고, 하느님 앞에서 항상 만족합니다. 하느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례한 일일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절대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이 땅으로 가장 잘 이끌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에 감사로 응답하면서, 고통을 겪는 이들의 빈 손을 여러분의 선물로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며(2코린 9,12 참조), 가난한 이들의 감사가 하느님의 은총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복을 보냅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도 순간적인 기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입니다. 흔



진정한 기쁨의 집

“독재는 국민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국민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벨라루스의 교회는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평화와 대화를 호소합니다. 마힐료우 성 안토니오 본당의 저지 비에르조브스키 신부(글라라회) 역시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구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정과 본당 안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성체 성사를 거행할 수 있기를 생각했고, 진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영혼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성당을 세우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특히 그의 옛 고향인 폴란드에서 모금을 이어 왔습니다. 13년 전에 시작된 건축이 본당의 성장보다 더디게 진척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본당 규모가 커져 이제 성전도 150석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임시 경당에서 주일에 미사가 4대 봉헌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당 외관은 완성되어 있고 지붕도 있지만, 난방 시설, 타일, 내부 벽칠, 창문과 문 등을 마무리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여행과 모금이 불가능해졌고, 비에르조브스키 신부도 지금은 폴란드에 가지 못합니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서서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은 비에르조브스키 신부와 성 안토니오 본당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ACN이 떠오른 것입니다. ACN은 지난 몇 년 동안 본당의 사목 센터와 무료 급식소, 위층에 수녀들을 위한 집과 작은 사제관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지원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평화의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ACN이 약 65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질문

사도행전은 에티오피아에서 그리스도교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왕 칸다케의 내시가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필리포스가 나타납니다. 필리포스에게 내시가 묻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사도 8,31)

교리교육에 대한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한 시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서나 유효하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히르 다르테시 교구장 리잔 크리스토스 마테오스 세마훈 주교는 이 질문에 대해 교리교사를 위한 2개년 집중 프로그램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필리포스 사도처럼 그는 교육의 필요성을 압니다. 아직 한 번도 신앙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더 이상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리교사들이 신앙을 원래의 모습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욕심이라고 할지라도, 교구의 교리교사 170명 모두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만큼 비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기쁨에 가득 차 하나님께로 제 갈 길을 가도록, **ACN은 약 142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전파되다

“1g의 선한 모범이 50kg의 말보다 더 무게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이 말씀은 교육
뿐 아니라 복음화에도 해당됩니다.

이는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대교구에서 열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가정을 위한 여름 캠프에서 하루의 활동을 이끄는 구호와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도우며, 각자 자기 할 일이 있고 누구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70명과 10대 학생 14명, 이 중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처음 체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름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 꿈을 성 요한 바오로 2세 순례 센터가 실현시킵니다. 순례 센터는 여름 캠프를 개최하며 네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복음 전파하기, 젊은이들을 지도자로 양성하기,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실천하기, 젊은 가정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등입니다.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요리하며 기도하고, 토론과 노래도 합니다. 어떤 팀은 놀이나 워크숍을, 다른 팀은 공동 기도를 준비하고, 또 다른 팀은 식탁과 주방, 캠프에서 청소를 담당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전담하는 팀도 있습니다.



과거 여름 캠프의 사진들

리투아니아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몇 년 뒤에 교구에서 여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젊은이와 가정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듣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어린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안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기쁨의 모범이 그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 주일 미사에 어린이들이 다시 올 때 흔히 부모님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캠프 시설은 간소하지만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ACN은 올해 이 캠프에 약 6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앙의 밝은 빛

“믿는 이들은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정 전체를 비추어 주는 빛으로 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요르단 수도 암만에 있는 예수회 센터는 이런 신앙의 빛으로 요르단의 그리스도인들을 비추고자 합니다. 그 빛은 우선 하느님 자비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밝게 빛나려면 인식과 지식을 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말과 모범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2021년도 프로그램에 따라 성경 공부와 교리 수업, 기도가 삶의 여정을 신앙의 빛으로 비추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아랍어와 영어로 진행되며,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8월에는 1주일 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라크에서 온 많은 그리스도인 난민을 수용했으며,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중동의 얼마 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빛이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ACN은 암만의 예수회 센터에 약 195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또한 교회의 기쁨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을 가정과 결혼 생활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ACN 또한 세계 곳곳에서 가정 사목을 지원합니다. 해발 약 5,000m의 안데스산맥, 페루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추키밤비아 성직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가정들은 흔히 사제의 발길이 거의 닿을 수 없는 고립된 지역에 멀리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오랫동안 ‘빛나는 길’이라는 페루 테러 집단으로부터 희생되었습니다. 이곳의 가정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소망일 뿐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공격

적인 행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의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평신도 100명이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을 토대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각 본당의 부부와 가정이 사랑을 심화시키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하시려는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쓸쓸한 안데스산맥의 가정들이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ACN은 약 273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정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여러 과제에 직면하면서 그와 함께 갈등과 긴장, 가정 폭력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오데사 심페로폴 교구는 기도 그룹과 가정 운동의 멤버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가족들은 공동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좀 더 가까워지며 신앙 안에서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ACN은 이곳에 약 1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활동력 있는 협력자

“가정 사도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도록 평신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인도 동부의 투라 교구장 앤드류 마라크 주교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안정적인 그리스도교 가정이 교회와 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신자 대부분이 차별을 받는 소수 민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가톨릭 신자의 수가 몇 배나 증가했지만, 더 깊이 있는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사제와 수도자에게 맡깁니다. 젊은이들은 흔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가톨릭 신앙을 포기합니다. 와해되는 가정과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언과 행동으로 투라 교구의 가정과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가톨릭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 **ACN은 약 9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랑을 믿도록 용기를 북돋우다

아프리카에서 가정은 높은 위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도 현대적 생활 방식에서도 부부가 가정을 꾸려 행복해지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곳 전통인 신부 지참금이 여성들의 인격을 말살합니다 여성은 남편과 시가의 소유물이 됩니다.” **카메룬** 출신 앤 다반 수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커플은 흔히 혼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동거를 합니다. 지역에 만연한 일부다처제도 문제인데, 그것이 대개 부인들 간의 질투로, 또 증오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은 젊은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아이를 여럿 낳으면서도 안정된 가정을 갖지 못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앤 다반 수녀가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굳건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텐테스 선교 공동체의 앤 다반 수녀와 동료 수녀들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야운데에서 젊은 커플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안정된 가정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교육은 결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천한 부부들이 모임에서 경험을 나눕니다. 그 밖에도 수녀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파티가 아니라, 바로 혼인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약 650만 원이면 거의 150명의 젊은이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도 교회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존중과 사랑, 상호 대화에 바탕을 둔 관계가 당연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보보 디올라소 대교구는 ACN의 도움을 받아 21개 본당에 각각 ‘가정 학교’를 설립할 조력자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예비부부와 부부, 다른 가정들이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ACN은 이 일에 약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여성의 가임 주기를 존중하는 데 기반한 자연적 가족계획도 그중 한 분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배웁니다. 성실과 책임 안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전체적으로 전달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시며, 이는 가정을 통하여 현실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성 요셉의 해'에 대한 감사

하느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성 요셉을 통해 더욱 드러내 보이십니다. 지난 주일, 저는 본당 주보 성인 축일 미사를 봉헌한 이곳 성 요셉 본당을 방문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성전 건축 사업이 실현될 예정입니다. 하느님의 보답이 함께 하시기를! 저희의 기쁨과 후원자분들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합니다! 벌써 요셉 성인께 후원자분들의 지향을 대변해 주시길 청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브라질 사제로부터.

수녀님들을 위하여

수녀님들을 위한 작은 후원금을 동봉합니다. 하느님께서 수도자들과 그들의 활동을 축복하소서! 아름다운 수도복을 입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기보다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용기와 힘 그리고 활동력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증인들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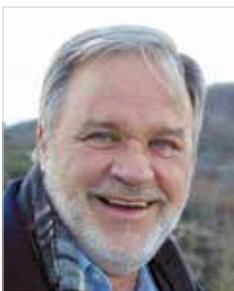
'ACN 후원자의 날'을 기뻐하며

저는 「사랑의 메아리」 지난 호에서 전해 주신 친절한 안부 인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1일, 예수 성심 대축일에 열린 'ACN 후원자의 날' 행사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이 행사는 사랑과 감사의 표시이며,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한 연대의 표시입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내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서로 존중하며, 여러분이 봉사하실 때 많은 사랑과 기쁨과 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료였던 위르겐 리민스키를 기억하며

올해 예수 성심 대축일에 ACN에서 능력을 발휘하던 성실한 동료의 심장이 뛰기를 멈췄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위르겐 리민스키(향년 72세)가 심장 마비로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위르겐 리민스키라는 사람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은 「사랑의 메아리」를 읽어 오신 여러분에게 이미 친숙한 것으로, 그



는 수십 년 동안 「사랑의 메아리」의 편집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며 기쁨을 주었습니다. 위르겐은 ACN의 과업과 내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ACN의 후원자와 여러분과 사업 협력자 사이를 잇는

다리에 튼튼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의 삶에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위르겐은 사망 전날까지 ACN 국제 본부에서 「사랑의 메아리」 편집팀과 회의를 하고 가정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번 호의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그가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을 둔 주제로서, 출판 관련 활동을 하는 내내 스스로 모범이 되어 철저하고 명쾌하게, 또 유머와 인간적 온기를 가지고 대변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는 아내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오면서 10명의 자녀와 21명의 손주들을 위해 존재하고자 함께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변함없이 그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르겐을 기억하면서 가슴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ACN, 2020 연간 보고서 발표

2021년 6월 18일(현지시간), ACN 국제본부는 「2020 연간 보고서」를 온라인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ACN의 토마스 하이네켈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활동을 뒤집어엎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곤경과 어려움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거의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일이나 수입,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사태에서도 ACN의

후원자분들은 우리 단체와 계속하여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크나큰 자비 덕분에 저희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라며 하이네켈던 대표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ACN에게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모두 심각한 경제 불안과 어려움을 떠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CN 후원자분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2020 연간 보고서 한글판 발행



「2020 연간 보고서」 한글판이 발행되어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보기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bit.ly/ACNannual20>

ACN은 23개 국가 지부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약 1656억 원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약 221억 원(1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후원자 여러분의 기부 덕분에, ACN은 지난해 약 1378억 원 규모의 기금으로 전 세계 138개국에서 총 4,758건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절박한 어려움부터 덜어 주고자 약 83억 원 이상을 401건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ACN 2020 성탄 캠페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5-36)

ACN 한국지부 총 916명 참여 155,813,430원 모금

‘ACN 신앙의 선물’을 통해 시리아의 어린이들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겹옷을, 레바논에는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파괴된 성전 재건을, 파키스탄에는 사제와 수도자들의 생계를 지원했습니다.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통받는 교회 돕기

검색

교황청
재단

